

[사회공헌] 코스콤, 10년 연속 저소득가정 겨울나기 지원

»» 브랜드 스토리

코스콤의 사업 소개, 사회공헌 활동, 각종 이벤트 및 행사 등을 소개합니다.



코스콤 희망상자 물품지원 행사사진

- 코스콤(대표이사 사장 홍우선)은 코로나와 추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‘희망상자’를 전달했다.
- 코스콤은 영등포구 전통시장에서 생필품과 부식 등을 구매하여 저소득 150가구에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.
- 전통시장을 방문한 엄재욱 전무이사는 “2011년부터 이어온 저소득가정 겨울나기 지원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”며 “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과 소상공인을 함께 돕기 위해 이번 희망상자 나눔행사를 진행했다”고 설명했다.
- 현재 코스콤은 영등포구 우리시장(전통시장)을 포함해 ▲춘천 명월마을(농촌) ▲인천 대부도 흙골 어촌계(어촌)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지원해오고 있다.

[첨부] 코스콤 희망상자 물품지원 행사 사진

▷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koscom.co.kr